

[스페인] 딸기 생산 및 가격 동향

2012 년 15 째 주(4 월 9 일 ~ 4 월 15 일) 동안 수확된 딸기 누적 수확량이 기존 예상치의 불과 절반에서 60%에 다다르면서 유럽시장으로의 수출량은 주별 수출 가능량의 100%을 기록하게 됐다. 원산지에서의 딸기 가격은 기존에 확정된 가격 때문에 반락했다.

부활절이 있던 성 주간 (Holy Week) 동안의 낮은 기온과 습도가 딸기의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높은 상품성을 유지해 갔다. 딸기 출시기간 초반에는 딸기 가격과 판매가 전년대비 약 20% 가량이 상승했으나 4 월 이후 성 주간 기간 동안에 딸기 출고가 중단됨에 따라 딸기 저장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반락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15 째주 동안 딸기 재배자들이 받은 가격은 킬로그램당 0.70 에서 0.90 유로를 기록했다. 이 가격 수준은 전년 동기간의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페인 전국 시장을 살펴보면 주요 소규모 유통 점포에서 우엘바 (Huelva)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의 가격은 1kg 의 딸기가 담겨진 바구니가 킬로그램당 2.25 유로에서 2.45 유로로 판매된 반면, 500g 의 딸기 바구니는 킬로그램당 2.30 유로에서 2.50 유로 수준에서 판매되었다.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이미 매주 수출 가능한 양의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엘바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산 딸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 게다가 다른 계절 과일들의 생산량도 증가 및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수준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내 도매시장에서 스페인산 250g 짜리 패키지에 담긴 딸기는 킬로그램당 3 유로에서 1.50 유로로 하락했다. 또한 독일 도매시장에서도 스페인산 딸기의 판매 가격은 하향세를 보여, 월초 킬로그램당 2.95 유로에 판매되던 것이 월말에는 2.00 유로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런던 시장에서 우엘바 딸기는 킬로그램당 2.87 유로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 www.freshplaza.com)